


보도 일시	2022. 2. 11.(금)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2. 11.(금)
담당 부서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책임자	과장 서민규 (02-901-7160)
		담당자	주무관 남윤철 (02-901-7166)

## 국립통일교육원, 『손안의 통일』 11~15권 발간 - 우리 일상에 내미는 평화의 손길 -

-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 문제가 우리 일상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손안의 통일』 11~15권을 발간합니다.
  - 『손안의 통일』은 다양한 일상의 주제를 통해 독자 스스로가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 이번 11~15권에는 △생태학 △여행지로서의 북한 △영화 △비무장지대의 의미와 가치 △분단 도시를 주제로 하여 전문가의 글과 사진 자료 및 삽화를 풍부하게 수록하였습니다.
  - <생태의 시대와 비무장지대>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남북 분단과 통일 후의 미래상, 기후 위기의 시대 공생의 의미와 비무장지대 보존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 <미리 써본 북한 여행 기획서>는 여행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여행 감독의 입장에서 독자들이 북한 여행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 관광 관련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 <스크린으로 만나는 한반도>는 전쟁과 분단을 주제로 다룬 영화 22편을 분석하여, 시대에 따라 영화가 분단 상황과 전쟁을 어떻게 표현하고 북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비무장지대를 보고합니다>는 비무장지대 각 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과 그 생태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남북협력 공간으로서의 비무장지대에 대해 조명하였습니다.
  - <베를린에서 만난 서울과 평양>은 독일의 분단과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 과정을 베를린에서 직접 경험한 한인·유학생의 경험담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우리의 역사적·정서적 아픔을 성찰해 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손안의 통일』 다섯 권(총 5,000부)은 순차적으로 전국에 있는 통일 관련 기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됩니다.
- 국립통일교육원은 이 책을 통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평화·통일 문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붙임 1. 『손안의 통일』 11~15권 소개자료 1부.  
 2. 『손안의 통일』 11~15권 저자 소개 1부. 

# [붙임1] 『손안의 통일』 11~15권 소개자료

순번	표지	소 개
11권		<p style="text-align: center;"><b>생태의 시대와 DMZ</b>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p> <p>지은이: 최재천(이화여대 석좌교수) 형 태: 175면 / B6(120*188mm) 연장정</p>
12권		<p style="text-align: center;"><b>미리 써본 북한 여행 기획서</b> - 평화가 오면 어디부터 갈까요? -</p> <p>지은이: 고재열(기자) 형 태: 205면 / B6(120*188mm) 연장정</p>
13권		<p style="text-align: center;"><b>스크린으로 만나는 한반도</b> - 한국 영화 속 분단 이야기 -</p> <p>지은이: 강석률(광운대 교수) 형 태: 212면 / B6(120*188mm) 연장정</p>
14권		<p style="text-align: center;"><b>DMZ를 보고합니다</b> - 평화와 생명의 현장을 찾아서 -</p> <p>지은이: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외 형 태: 219면 / B6(120*188mm) 연장정</p>
15권		<p style="text-align: center;"><b>베를린에서 만난 서울과 평양</b> - (탈)분단 도시의 열망 -</p> <p>지은이: 정진현(국립통일교육원 교수) 형 태: 230면 / B6(120*188mm) 연장정</p>

## [붙임2] 『손안의 통일』 11~15권 저자 소개

순번	저자	소개
6권	최재천	평생 자연을 관찰해 온 생태학자. 서울대학교에서 동물학을 전공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생태학 석사 학위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시간 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와 생명다양성재단 대표를 맡고 있다. 하버드 재학 시절 세계적인 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의 제자였으며, 그의 책 『통섭』을 번역하여 국내외 학계에 이 개념을 널리 알리고 있다. 저서로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등이 있다.
7권	고재열	어른의 여행클럽/트래블러스랩을 이끌고 있는 여행 감독. 고려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시사저널』과 『시사IN』에서 기자로 20년 동안 일했다. 현재 경기아트센터 이사과 서울시 공공조경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재미로재미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여행과 여가의 미래를 상상하며 『생애. 전환. 학교』와 『축 2022-2023』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8권	강석률	서울시립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대학원 연극영화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영화학회와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이사, 대중상·백상예술대상·전주국제영화제 심사위원, 인천영상위원회와 아리랑씨네센터 자문등을 지냈다. 2008년부터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에서 문화 이론과 비평, 한국 영화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계간 『영화가 있는 문학의 오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하길종, 혹은 행진했던 영화 바보』(2005), 『영화는 역사다』(2011), 『친일 영화의 해부학』(2012), 『은막에 새겨진 삶, 영화』(2014), 『한국의 영화 감독 4인을 말한다』(2015), 『영화 비평: 이론과 실제』(2016), 『영화 색채 미학』(2017), 『한국영화에 재현된 가족 그리고 사회』(2018), 『상처의 응시』(2020) 등이 있다.
9권	DMZ평화 생명동산	DMZ 일원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와 평화·생명·통일·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2009년 9월 강원도 인제에서 개관한 이후 1,800여 개 기관과 단체, 100여 개 나라에서 군인, 학생, 지역 주민, 공무원, 시민, 외국인 등 6만여 명이 다녀갔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DMZ 일원을 <좀 더 평화롭고 생명에 이로운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어 한반도를 넘어 전 지구촌이 <생명·평화 공동체>가 되는 날을 꿈꾼다.
10권	정진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종교와 민족다양성 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이자 서울랩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며, 이주-난민과 종교, 도시의 열망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사회통합연구 분과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립통일교육원에서 평화와 사회통합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겸임교수,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 외래교수,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 공동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독일 한인이주여성의 초국적 삶과 정체성』(공저, 2021), 『통합, 그 이후를 생각하다』(공저, 2021),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11: 독일편』(2021) 등이 있다.